

일 주 문



천태종 구인사 광명전 불불식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11월 13일 천태종 단양 구인사에서 광명전 불불식을 봉행한다.



불교환경연대 숲유치원 개원 및 원아모집
불교환경연대 대표 현교 스님은 11월 15일 화계사에서 숲유치원 '아이 숲'을 개원한다. 원아 모집 11월 13일 까지. (02)734-1915



용문사 훈련소 범당 기금 전달
양평 용문사 주지 호산 스님은 11월 2일 아름다운동행에 군산훈련소 범당 신축 지정 기탁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동국대 경주캠 원자력 인력양성
순동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11월 3일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와 경북도청에서 '원자력 인력양성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동산반야회 28주년 기념법회
안동일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 이사장은 11월 13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창립 2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32-1206



조계사 원심회 창립 22주년 기념법회
임재면 조계사 원심회 회장은 11월 14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창립 2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20-4528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10주년 기념식
이은영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11월 11일 삼성호텔 아도니스홀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02)722-2101



박용기 동대 교수 대한한의학 학술대상
박용기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10월 31일 제9회 대한한의학 학술대상 기초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 대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청봉 스님



대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11월 1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 총무원 행정위원장 청봉 스님을 임명했다. 청봉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하고, 종권수호위원회 위원, 종정홍보원 부원장, 중앙총회의원, 고시위원회 위원, 중앙사정원 부원장, 경기동부교구 총무원장, 중앙초심원장, 총무원 행정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양평 용천사 주지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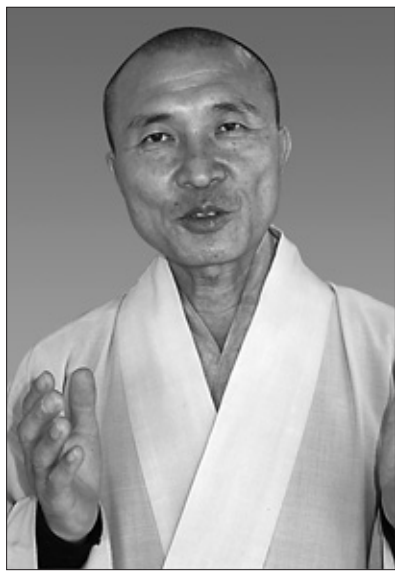
■ 현종 스님 인터뷰

“수행·봉사하는 명상문화 운동 전개”

(사)명상연구원(원장 현종·사진)이 설립 후 첫 명상강좌를 개설했다. 명상연구원이 소개한 첫 프로그램들은 요가, 상담, 치유, 명상을 도입해 보다 많은 이들이 수행의 참 맛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종 스님은 11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립 후 개발된 명상 대중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현종 스님은 “명상 수행자가 심리적인 상처 내지 장애가 있을 때에는 올바른 명상이 될 수 없다. 명상을 기본 수행으로 하면서 심리상담, 건강상담, 대체의학 등을 통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으로 신체 치유의 방편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출가 후 명상의 대중화, 세계화를 화두 삼아왔다. 현종 스님은 “일반인들을 간화선만으로는 평화와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는 한계를 느꼈다”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에서 수행과 봉사가 동시에 이루어져 건강한 삶을 사는 명상 문화운동을 전개하겠다” 설명했다.

명상연구원은 11월 12일 박경준 교수의 ‘명상이란 무엇인가’ 첫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15일부터는 정규 명상 강좌를 본격 가동한다. 프로그램은 다라니 명상, 참선 명상, 명상 요가, 치유



요가, 건강상담프로그램, 개인 및 집단 상담프로그램 등이다.

다라니 명상은 월, 수, 금 현종 스님이 직접 지도한다. 현종 스님은 “간화선 등 다른 전문 명상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수행으로, 명상요가, 숲 걷기 명상을 통해 몸을 풀고 다라니를 암송토록 지도한다”고 말했다.

참선 수행은 참선 경험자 및 명상치유와 다라니 명상 과정을 마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선 수행 지도는 문경 한산시 용성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이 담당한다.

명상 요가는 정통요가에서 명상을 심화시켰다. 개인별 맞춤형상담과 명상을 기본으로 대체요법을 도입해 다이어트, 스트레스, 우울증, 대인관계, 학습능력 및 집중력 향상 등을 위한 건강 상담과 함께 운영된다. 또 개인상담, 음악 명상 등의 프로그램도 상시 진행할 계획이다. 흥해경 상담심리전문가는 “명상과 상담은 상호 조화를 이룬다. 명상만 할 때에는 일정 수준에서 진전되지 않지만, 심리상담을 병행하면 상호작용으로 인해 명상과 상담의 뚜렷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명상연구원의 지리적 이점도 이용한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남산 자락에 위치해 도심에서 걷기 명상, 건강체조 마유다루기, 야외명상, 명상 단기출가 등도 실시한다. 또 명상 대중화를 위해 참선 프로그램과는 별도의 시민선방을 마련해 개방할 계획이다.

명상연구원은 명상기초 연구사업, 명상프로그램 연구사업, 명상공동체 결성사업, 학교, 학원, 기업체에 명상을 통한 학습 및 성과 향상 과정 도입, 명상리더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기관 설립, 명상 수행용품 및 전문서적 발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1577-0373 이상연 기자

보광 스님, 승가교육진흥기금 전달

체계적 지원 위해 장학재단 설립 제안

조계종 장학재단이 출범해 승가교육 기금을 안정적으로 조달·운용하게 된다.

조계종 장학위원회 위원장 보광 스님은 11월 4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승가교육진흥기금 3000만원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체계적·효율적 장학지원을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장학재단이 세워지면 종단 내 장학기금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배석한 교육부장 법인 스님에게 “2011년도 장학재단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보광 스님이 전달한 승가교육진흥기금 3000만원은 10월 14일 스님의 화갑을 맞아 제자·상좌들이 간행한 <불연록> 출판기념회에 담지한 축하금을 모은 것이다. 조동섭 기자



(오른쪽부터) 조계종 장학위원회 위원장 보광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 스님.

반룡사, 계율근본도량 선포식

주지 도일 스님 취임법회 및 울장연구원 현판식도

고령 반룡사가 계율근본도량으로 선포했다.

조계종 계단위원회와 울장연구원은 11월 3일 고령 반룡사에서 계율근본도량 선포식을 개최했다. 또, 반룡사에 울장연구원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행사는

‘율장이운’과 한다. 현화, 해인사 울주 종진 스님의 고불문 낭독, 계율근본도량 선포와 제9 교구 분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의 인사말, 계단위원장 고산 스님 법어, 울주 철우 스님, 반룡사 주지 도일 스님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순범천 대구지사장

신임 총무국장 현담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에 현담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4일 신임 총무원 총무국장으로 현담 스님을 임명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임명식에서 현담 스님에게 “총무원 수석국장으로서 공심으로 열심히 일해달라”

고 당부했다. 현담 스님은 1986년 대승사에서 법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2년 범어사에서 석주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법담 스님이며 본사는 불국사다.

현담 스님은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후 조계사 포교국장, 포항 보경사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오 총장 “재임 않겠다”

동국대 홈페이지 ‘총장경영리포트’서 심경 밝혀

동국대 오영교 총장이 임기만료 3개월 여를 앞두고 차기 총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영교 총장은 11월 1일 동국대 홈페이지의 총장경영리포트에 ‘총장 선임에 즈음하여’ 제하의 글을 남겼다.

오 총장은 글에서 “4년간 이끌어 왔던 ‘동국호’의 선장, ‘동국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을 그만 놓고 제 자신의 갈 길을 찾겠다. 이번 총장 선임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오영교 총장은 “2007년 2월 26일부터 공식적으로 동국에 들어온 이



후, 108 프로젝트를 통해 동국의 미래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대로 틀을 짰으며, 그 틀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이제 그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로써 제 역할은 마무리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총장은 “그간 혹시 제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도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동국 발전에 동참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

다”며 “100년이 넘는 긴 역사에 걸맞은 동국의 위상, 일류 동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심에서 벗어나 오로지 ‘우리 동국’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교 총장은 “법인이든, 교수든, 직원이든 자기 집단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결코 일류 대학의 꿈을 실현할 수 없다. ‘나’를 버리고 ‘모두’를 생각하며 무소유를 몸소 실천하는 곳이 돼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의 새 총장 선출은 총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을 거쳐 12월 말 경 이뤄질 전망이다.

조동섭 기자

봉

일봉신문사 창간 27주년 기념 법회

- 제5대 회장 김도기 스님, 상임부회장 석법흥 스님, 제5대 사장 동봉 스님, 부사장 각운 차우영 스님 취임 -

축

귀의 삼보하옵고

만추지절에 법하의 가내에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일봉존자님의 가호가 항상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과 동국대학교불교대학장, 대학선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국가보위입법의원, 경주 불국사 주지등 수많은 행적을 남기시고 세계최대 박사학위(문학철학박사등 126개)를 받아 세계기네스북에 5관왕을 차지한 일봉 서경보 존자님께서 창간한 일봉신문이 어느덧 2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일봉신문사 창간 27주년 경축법회와 함께 본사 제5대 회장 김도기 스님(영주 관음사 주지, 전국일불문도회 명예회장), 상임부회장 석법흥 스님(강진 남미륵사 주지), 제5대 사장 동봉(정대룡) 스님(홍천사 조실), 부사장 각운 차우영 스님(대한불교불일조승종 부종정) 취임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 청 인

회장 김도기, 상임부회장 석법흥, 사장 동봉, 부사장 각운 차우영, 발행인 겸 편집인 이봉 서병열 합창

- 다 음 -

- ◎ 제목 : 1. 일봉신문사 창간 27주년 기념 법회 2. 제5대 회장 김도기 스님, 상임 부회장 석법흥 스님 제5대 사장 동봉 스님, 부사장 각운 스님 취임식

- ◎ 일시 : 불기2554(2010)년 양력 11월 30일 음력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

- ◎ 장소 :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2층 대회장 (서문으로 입장 주차 하십시오) (서울 마포구 성산2동 515번지) (강변북로 성산대교 지나 바로 월드컵경기장으로 진입하십시오) (전화 : (02)306-3600)

- ◎ 전화 : 일봉신문사 (02)777-0959, 일봉문도회(02)777-0901